

법회안내

문빈정사(062)222-2202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초사흘 오전10시30분
 인공법회 매월7일(음) 오
 주지 법일스님 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종교동행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창원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합동장엄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거사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여의도포교원(02)784-9136
 인공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자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현진스님 법회경강과 월~금 오전10시30분

포항 관음사(0662)47-2729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종파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고태하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부처님아름법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6시

대안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인공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매월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7시
 공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법림사(062)234-2207
 산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마인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자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월야장엄법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8시

구화사(063)323-4884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초보선사경문 및 자장경강의 매월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 매월24일(음) 오전11시

극락정사(02)814-9670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인공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자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조계종은 6월26일 육군 특수전학교 체육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공식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이상번)는 6월21일 호법단(단장 남도희)과 민족문화지킴이(단장 배상호)를 발족, 교권수호와 사찰환경 보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근까지 꾸준히 계속돼 온 체육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찰환경 훼손과 관련한 교권 침해에 대해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을 지키는 불자의 마음은 어떠한지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여러의 입벌 후에 어떤 사람이 불·법·승을 할퀴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노하거나 번민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들이 만

이렇게 들었다

일 성년이면 사문이 아니며 사문의 도리가 아니며, 불도를 수순(隨順)함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한다. <화수경>
 ▣ 정법을 호지(護持)하는 경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비길 바 없으니,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정법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 <제법집요경>
 ▣ 보살은 세상에 늘 비방을 받아 큰 고통이 있다 해도 다이를 참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행지(行地)에서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 <보살행요십인신경>
 ▣ 만약 어떤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며,

똥똥으로 때리고 살을 도려내어 그 몸을 괴롭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른대도, 이 일 때문에 어지러운 마음이나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뜻이 물러서지 않아 대비홍서(大悲弘誓: 큰 자비에서 나오는 불·보살의 서원)를 더욱 강화해서 휴식이 없어야 한다. <화엄경>
 ▣ 보살행은 인내가 근본이다. 인내에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욕을 먹고도 침묵하여 맞서지 않음이고, 둘째는 때를 맞아도 원한을 품지 않음이고, 셋째는 노여움을 지닌 자를 자애의 마음으로 맞이함이고, 넷

째는 경멸하여 욕하는 자가 있어도 그 악을 생각에 두지 않음이다. <보살생지경>
 ▣ 끝없는 천마(天魔)·귀신·야차(夜叉)·나찰(羅刹)이 침범해 와도 보살은 인욕바라미를 가지고 그 군사를 깨며, 내지는 8만천 번뇌의 도둑이라도 인욕으로 격어 없애며, 이런 천마의 대군과 번뇌의 도둑뿐 아니라 극하극소(極下極小)의 도둑까지도 인욕으로 제어한다. <육바라밀경>
 ▣ 산남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승보를 손상시킨다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가, 그 결과로 인신(人身)을 잃고 같이 지옥에 떨어

어져 나올 시기가 없으리라. <대보왕경>
 ▣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大悲)가 없다고 말할지언정 우바리를 천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가 비록 천민 계급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호법(護法)·지율(持律)에는 제인자이니,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종묘과(三尊妙果)를 얻게 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느니라. <대방편물보은경>
 ▣ 아주 모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비방하는 사람은 그 죄가 매우 무거워서 오무간(五無間: 5종의 무간지옥)의 온갖 죄업보다 더하다. <불모출생경>
 ▣ 비유컨대 태산이 바람에 불리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의 마음의 온갖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대해 기쁨도 근심도 느끼지 않는다. <아시세왕경>

신행수첩

사경회 만일기도 헌다식

대한불교사경회 만일생명기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양배)는 17일 금정산 법어사 지장암(주지 목화)에서 헌다식 법회를 봉행한다.
 95년 1월1일부터 시작, 만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1백일마다 부처님께 차와 꽃을 공양하는 의식인 헌다식 법회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불사이다.
 매일 24시간 중단되지 않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자신보다 타인,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발원을 하며, 기도의 참 뜻을 되새겨 보자. (051)554-7535

최정사 가족법회 한마당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제물, 명예도 아닌 가족간의 화합과 사랑일 것이다.'
 대구 최정사(주지 금봉)는 처음으로 13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및 청년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금봉스님의 '불우이웃을 돕고 자비심찬 정신으로 생활하자'는 내용의 법문과 가요경연대회, 장기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다운 불자로서 수행정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53)767-4860

청소년 환경감시단 교육

불교 문화재 보호를 통해 불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본관스님)은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감시단 활동을 펼칠 청소년감시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할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경주일원 형산강 지류보호 활동으

로부터 남산 불교문화재 주변정화 등 환경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펼쳐질 청소년 감시단은 월회 봉사활동 및 시청각 교육을 받게 된다. (0651)41-0762

'감포 앞바다' 어린이 답사

어린이를 위한 현장체험 위주의 답사가 현지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5개 종교계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선달스님의 지도로 발우공양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작년에 열린 '제1회 숲속의 학교' 모습.

있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3일 무더위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문무대왕의 호국 의지를 되새길 수 있는 유적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길에는 문무대왕의 수중릉을 비롯 이천대, 갑은사터, 기림사 등 경주에서 동해로 나가는 길의 유적들을 둘러보게 된다. 또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시간도 준비돼 있다.

종교인 평화회의 '숲속학교'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

스님)는 8월1일~7일 원불교 배내 삼동청소년 훈련원(경남 울주)에서 '제2회 숲속의 학교'를 연다. <사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5개 종교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종교문화 생활교육(원불교의 마음대조일기), 올바른 식사법(불교의 발우공양, 양란스님지도), 이웃사랑(천주교의 성서이야기)과 명상, 다도, 발자리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숲속의 학교'는 해 많은 동심으로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범종교적인 가치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기회. (051)243-9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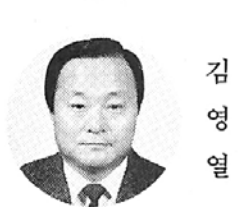
탄허재단 상원사 야외법회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정철)은 13일 치악산 상원사(주지 경덕)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녹음이 우거진 신록의 계절, 나들이를 겸한 이번 법회는 경덕스님의 '상원사 유래'를 결집인 법문과 대웅전(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8호), 3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5호) 2기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또 사찰의 연기를 그린 요사채 뒷벽의 벽화도 눈여겨 볼만한 흥미거리다.
 1천m 높이에 위치한 상원사에 가는 길도 정전 수행이라 생각하고 오르면 상원사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더욱 빛날 것이다. (02)237-4438

호법 목숨 잃을망정 정법배반 말라

정법을 호지(護持)하는 경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비길 바 없으니,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정법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 <제법집요경>
 ▣ 보살은 세상에 늘 비방을 받아 큰 고통이 있다 해도 다이를 참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행지(行地)에서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 <보살행요십인신경>
 ▣ 만약 어떤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며,

나의 수행일기



김영열

1990년 6월의 어느날, 아내가 입원한 원주 연세 의대부속병원 담당 의사는 보호자인 나를 진료실로 불렀다.
 "이제 암이 말기로 진행됐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아내의 임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35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밖에 모른 아내. 그런 아내에게 7년 동인의 고통스런 투병생활마저 모자라 죽음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다니... 순간 나는 죽음의 선고 직전까지 염주를 굴리고 경을 외우며 아내가 의지했던 부처님이 원망스러워했다. 그토록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만, 부처님이 외면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해 7월, 아내는 나와 두 아들을 남겨 놓은 채 극락정토로 떠나 버렸다. 아내가 이승을 떠난 후 3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든 자리는 물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 다더니, 벗가락 2개만 갖고 결혼해 함께 고생하며 지은 집은 손길 닿는 곳 곳마다 아내의 흔적 투성이었다.
 그런 기억들 속에 둘러싸여 나의 방향은 시작되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직장에 나가 있는 낮시간이면 그래도 덜한데, 혼자 있는 밤시간은 더욱 괴로웠다. 하루 하루의 삶들이 무의미하게 흘러 갔고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얻었다. 언제부 터인가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걸으려 해도 힘이 빠져 질질 끌수 밖에 없었다. 나는 종이 아난가 걱정이 되어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돌아 다니던 중 가까스로 내가 앓고 있는 병이 '파킨슨씨 병'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번 눈앞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고단한 육신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두 아들

죽은 아내 일기장 보고 발심 집을 법당삼아 새벽독경으로 하루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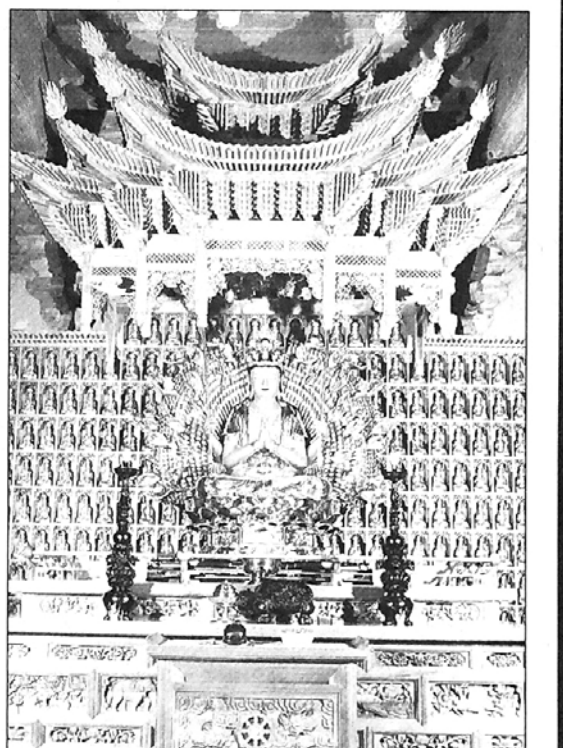
말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이 날부터 경을 외우고 기도를 시작했다.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의 미는 잘 몰랐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 나갔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어느덧 2년째. 이제는 새벽에 경을 암송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침식사를 미룰 만큼 생활화가 되었다. 근심으로 가득찼던 마음도 편안해졌다. 요즘

의 고비때마다 사경과 기도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온 아내의 불심을 잘 아는 나였지만, 이날 맺혔던 <금강경>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나도 경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뇌를 스쳤다.



음도 불편한 몸 때문에 절에는 자주 못가지만 내 집이 법당이라 생각하며 장소에 상관없이 열심히 정진한다. 또 올해 초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부터는 시간 나는대로 불서(佛書)를 구입해 독서삼매에 빠지곤 한다.
 "나무 사만다 못다담 아바라지 하다사 사나 남..."
 오늘도 나의 하루는 이렇게 '불설소제갈상 다라나'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 보낸 후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내날이었지만 기도는 나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아마도 아내가 회향하면서 나를 포교한 모양이다. <원주서림도서관장>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련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담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 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